

II. 主要 懸案

1. 「보고르 宣言」의 意義과 課題

- (초점) 「보고르 선언」은 史上 최대의 '한태평양 블록' 탄생을 예고하면서, UR 종결에 따른 새로운 「아·태평양 라운드」의 출범을 의미함
- (내용) APEC 기능 강화로 常設 機構化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고, 「무역·투자 자유화」에의 구체적 日程과 지침을 선언함
- (의의) 선진·개도국 간, 美·日·中 및 ASEAN 의 '對立構圖'에서 경제통합으로의 合意의 '求心點'을 도출한 것에 있음
- (과제) 1) '開放的 地域主義'의 관철, 2) 적극적 仲裁者 역할의 自任, 3) 동북아 安保의 多者間 協議體 기반 구축, 4) 동남아시아의 集中的 投資로 본격적 經濟實利의 추구

- 보고르 合意 배경은 냉전 이후의 經濟 다이나미즘 力學과 아시아 개도국의 自信感
 - 냉전체제 붕괴 후 지역통합인 EU, NAFTA의 속출로 새로운 經濟 다이나미즘이 형성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도 이 같은 추세를 피할 수 없는 力學이 조성됨
 - 「貿易自由化」를 선진 강대국의 經濟戰略的 意味로만 인식하고 이를 경계해 왔던 아시아 개도국이 최근 經濟發展으로 무역자유화를 통해서도 自國의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됨
- 역사적 意義는 4極의 '파워게임'인 對立 構圖에서 合意의 求心點 도출
 - 4極은 강력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세계 무역 자유화를 구축하려는 美國,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군사력을 추구하는 日本, 경제적으로도 아시아에서의 기반을 피하려는 中國, 그리고 美·日·中의 밸런스를 취하면서 지역 결속을 노리는 ASEAN 국가들임. 이렇게 APEC은 4極의 파워게임이 전개되는 무대라 볼 수 있음
 - 보고르 선언으로 어느 정도 아·태평양 지역의 '求心力'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APEC의 4極은 세대교체(美·中) 또는 정치구조의 변혁(日)에 직면한 일종의 不安定期를 맞이하고 있음. 이것은 언젠가 이 지역의 '遠心力'으로 작용될 것임

○ 실질적 결실은 APEC의 機能이 強化되고, 「무역·투자 자유화」에의 구체적 日程 및 지침이 선언된 것임

- 첫째, 事務局 기능 확대를 위한 작업반 설치로 APEC을 法的 拘束力을 갖춘 常設機構化에의 발판을 마련되었음
- 둘째, 「貿易·投資 自由化」를 위한 구체적 일정과 방안이 마련했음. 아직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투자 원칙」에 규정한 회원국간의 '內國人 待遇'은 域內投資 促進에 크게 기여할 실질적 성과로 평가됨

○ 우리의 과제

- 첫째, 우리의 기본방향은 APEC의 '開放的 地域主義'를 끝까지 관철시켜는 것임
- 우선 日本의 霸權主義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경제권과 北美 경제권이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함. 동시에 美國의 霸權主義와 NAFTA에의 對抗 勢力으로서 존재 의의를 갖기 위해서는 EAEC(東아시아경제회의)를 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또한, 아세안 域內 협력강화가 폐쇄적인 지역주의로 귀결되는 것도 적극 경계해야 함
- 둘째, 4極 대립구조를 충분히 이용한 적극적인 仲裁者 역할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位相 提高를 꾀해야 함
- 향후 무역자유화의 구체적 대상범위의 선정문제, 관세철폐나 아니면 일정 수준의 관세인하나의 방향 설정 등 산적된 문제해결에서 적극적 참여가 요구됨
- 셋째, 이제 APEC이 多者間 安保 協議體의 성격을 띄게 된 이상, 우리는 東北亞 安保協議體의 기반구축과 남북문제 해결의 場으로 적극 활용해야 함
- 따라서 북한의 APEC가입을 적극 유도하여, 金正一을 국제무대로 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함
- 마지막으로 현재의 美·日 주도의 동남아시아 경제판도를 파고드는 集中的 投資로 본격적인 經濟 實利를 추구해야 함
- 향후 더욱 가속될 무역장벽 해소로 우리의 對日 貿易逆調 深化가 쉽게 예견됨에 따라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은 唯一의 代案이며, 이를 위한 우리 기업 진출에의 걸림들을 정부는 적극 제거해 주어야 함

(홍근철)